대구도시철도 2호선 성주연장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2년 7월 일
발 의 자 : 백철현외3인

1. 제안이유

○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지방자치시대에서도 여전히 대도시 중심의 생활권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중소도시로 분산함과 아울러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성주군의 경우 대구광역시의 배후 농촌도시로 군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대구도시철도 2호선의 종착역(문양역)을 성주읍까지 연장 건의문을 채택 관계기관에 전달코자 함.

2. 주요내용

○ 대구도시철도 2호선 문양~성주(17.7km) 구간을 연장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코자 함.

3. 건의내용 : 별첨

4. 제출처 : 국토해양부장관,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장,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성주군수

대구도시철도 2호선 성주연장 촉구 건의안

우리 성주군은 조선시대 경상우도로써 우도감영을 성주팔거(八莒)에 둘만큼 땅이 기름지고 기후가 온화하여 살기 좋은 고장의 으뜸인 큰 대읍으로써 수많은 명현거유를 배출하고 왕실의 국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세 임금의 태를 봉안한 풍수지리학상 최고의 명당이자 생명문화의 고장으로 전성기 때 12만의 인구로 누구나 성주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평화로운 전원 농촌이었습니다만

민족의 격랑기인 일제강점기와 6.25사변을 겪으면서 주민의 살림살이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난을 벗어던지고 잘살아 보자는 일념에 1970년대 펼친 새마을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면서 근대화의 시류에 편승 직업 환경의 변화로 젊은 층의 이촌향도 현상으로 농촌은 빈집과 노인만 남아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사회 현상은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대도시 주민과 중소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있어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며, 어느 농촌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현재 인구 5만을 겨우 유지하는 중소농촌도시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의 부활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를 내걸고 지방의 경쟁력을 확충하여 동반성장을 꾀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우렸으나

지방자치 출범 20년이 지난 지금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더욱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으로 대규모 사업체 등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으로 몰리면서 지방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의 상생균형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특히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 추진,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율 조정”을 통한 지방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로 지방과 수도권이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주참외의 명품화는 물론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 4대강 사업과 병행하는 낙동강 유역의 발전전략,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의회와 500여 공직자가 합심 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군민의 기대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고 우리군 발전에 큰 획을 그을 뿐 아니라 급증하는 국도 30호선의 교통수요에도 대처할 수 있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성주연장이야말로 지역발전의 명운이 달린 문제로 사회 경제적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주5일제 근무로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레저 활동의 대변화와 건강한 삶의 질 보장차원에서도 시급하게 추진되고 논의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성주군 의회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성주연장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는 5만 군민의 절박한 심정과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첫째, 대구도시철도 2호선 성주연장으로 우리 지역 경제의 핵심인프라를 구축함과 아울러 경쟁력 확보로 지역을 살리고 대도시와 동반성장은 물론 성주일반산업단지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며, 주5일 근무의 대변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의 숙원사업임을 인식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국토해양부에서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문제 해소와 혼잡비용 최소화를 위한 대중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7년 문양~성주간 경전철 건설을 대구권 광역교통계획에 포함시킨 후 현재까지 대구도시철도 기본계획의 미수립으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못하고, 추진 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어 2014년에는 정부용역을 착수하여 주실 것을 정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셋째, 대구도시철도 2호선 문양역에서 성주간 약 17.7km의 경전철 연장사업으로 도·농 복합도시 발전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시고 경제적인 논리보다 중소도시지역을 살린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일동